



宗訓

- 1. 崇祖 精神의 高揚
- 2. 宗族 和睦의 勵行
- 3. 國家社會에 貢獻

順天金氏中央宗親會

# 順天金氏宗報

제 51 호 2007. 2. 15 (목)

順天金氏中央宗親會 발행/ 발행인 : 김중식/ 편집인 : 김봉환/ http://www.schkim.co.kr /138-839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01-11호 부광빌딩 2층/전화 : (02)400-2501~2502/FAX : (02)400-2505

## 新年辭



우리 順天金氏 종친여러분! 丁亥년 새해를 맞이하여 먼저 여러분 가정에 즐거운 일이 충만 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丙戌년 한해는 유난히 어려웠음에도 음으로 양으로 분회발전을 위해 도와주셨음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甲申大同譜의 간행이 계기가 되었음인지 송조의식의 고양으로 수 三년간에 각 문중에서는 많은 위선사(爲先事)를 추진하여 경덕재(景德齋)의 중건, 연대재(蓮臺齋)의 창건, 월담사(月潭祠)와 삼상사(三相祠), 국담정사(菊潭精舍)의 중수 그리고 분묘실전으로 이제껏 잊혀져왔던 여러 조상님의 추모단(追慕壇)의 설단과 현조님들의 신도비(神道碑)와 묘비수립등의 어려운 일들을 해냈으니 이 어찌 흐뭇하고 경하할 일이 아니었습니까. 위와 같이 거창한 사업을 주도하신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중앙회에서도 그 동안 시조부군의 춘·추향사와 연례행사인 종보의 간행과 대학생 교양강좌를 차질 없이 시행하였고 지난해엔 세적총람을 간행 반질하였으며 특히 여러 종현들의 협조 있어 시조 사적지 시설의 보수사업은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丁亥년 새해에는 위 사적지의 미진한 부분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지로서 또는 문화유적지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이 사업 역시 여러 종현들의 협조가 수반되어야 함은 물론이지요.

우리 시조부군께서는 그 옛날 여·순 지역에서 어떠한 생을 사셨습니까. 그 잔혹한 외구(外寇)를 격퇴하여 그 지역을 수호하여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게 하시어 그 지역의 수호신인 성황신(城隍神)으로 신격화하여 받들지 않았습니까. 그로부터 千년이 지난 18세기 후반 그곳의 유학자 趙顯範이 쓴 송시를 읽고 감명 깊어 이에 적어봅니다.

金別駕 英雄人生 不得君平陽 死則爲 城隍神  
(金總은 영웅으로 살았었지 평양의 군장은 못 되었지만 죽어서 성황신이 되었지)

神之陰德 堪傳後世  
그의 숨은덕은 끊이지 않고 후세에 전하고 있네

世文武 多賢臣 君不見 進禮山  
세상의 많은 현신들이여 그대를 저 진례산을 아니 보았는가

高長不崩至今 享祠秋興春  
거룩함이 지금도 변함없어 사당에서 봄·가을 제사를 지낸다오.)

그는 유학자 이면서도 부군의 공덕을 이와 같이 칭송하였으니 우리들 후손 어찌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당시 (正祖代)만 해도 음사(淫祠)라 하여 다른 곳의 성황사는 없어지고 무속(巫俗)으로 변질되어 갔으나 부군을 모신 성황사에서는 조선조 내내 관에서 유생을 보내어 제향하였으니 우리 시조부군 참으로 거룩하심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왜정(倭政)초에 그 사당이 훼손된 이후 百年이 지난 오늘날 麗水에서는 十여년 전부터 다시 진례산이었던 영취산(靈鷲山)에 신단(神壇)을 조성하여 부군을 영취산신(靈鷲山神)으로 모시고 해마다 한식절이면 여수시의 안녕과 번영을 비는 제향을 올리고 있으니 이 또한 감개무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여러 조상님들 부군의 음덕입어 학덕(學德)이 높고 많은 훈공(勳功) 세워 우리 金門을 명문으로 이룩하셨는데 부군의 후예인 우리들 어찌 처세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正體性)을 인식하여 송조모선(崇祖慕先)하고, 상호간에 돈독(敦睦)함은 물론 사회에 공헌하는 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쉽게도 사소한 일로 서로 반목하고 자기주장에 집착하여 문중화목을 그르치는 일이 생기는듯하여 유감스럽고 항상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중앙회에 부족한 점이 있어 그러한가 하고 반성도 해 봅니다. 새해에는 모쪼록 묵은 때는 훌훌 털어 버리고 명문(名門)의 후예답게 너그러히 처세하여 조상님에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세대는 정보화시대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으며 그 속에서 젊은 세대들은 자신의 뿌리에 대하여 무관심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뿌리를 찾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順天金門의 젊은이들은 조상님의 정기(精氣)를 이어받아 훌륭한 역량(力量)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을 바르게 인도하여 송조(崇祖)하고 배움에 정진해서 사회에 공헌하게 하여 우리 順金の 훌륭한 앞날을 기약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올해는 丁亥년의 회갑이 되는 복 받은 해라 하니 각 지회(支會)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굳건하게 발전하시고 전체 종친들께서는 뜻하시는 일이 순조로이 추진되며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분회 발전을 위해 성원해주시고 편달하시어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해인사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丁亥(2007)年 2月 일

中央宗親會 會長 金鍾植

順天의 화려한 貴族  
鷄林의 靈源일세.  
忠孝의 家門이요,  
道義의 門閥이라.  
千派로 갈라져도 根本은 하나요.  
萬枝로 뻗어나도 뿌리는 하나로다.  
代代로 敦睦지켜  
永遠히 後孫에게 傳해 주리라.

永世萬千道忠鷄順  
垂守枝派義孝林天  
後敦同之一之靈華  
昆睦根本門家源胄

順天金氏



(隱湖 金在文)



# 새해 所望은 家和萬事成



새해 벽두부터 젊은 부부가 家庭暴力으로 破鏡을 맞았다는 消息으로 모든 家庭에서 술렁거리고 政治관의 잦은 큰 목소리로 온 나라가 시끄러워 뜻있는 자들의 격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男便의 暴力을 견디지 못한 30대 주부가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고 연쇄 防火를 한 뒤 警察에 自首해 결국 拘束된 事件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男便이 수시로 주먹을 휘둘러 차라리 警察에 붙잡혀 유치장에 가는 것이 낫다고 生覺하여 불을 질렀다니 참으로 딱한 일이었습니다.

家庭暴力이 社會적으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많은 男便의 暴力으로 대인 기피증과 우울증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子女들은 자폐증으로 苦痛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家庭暴力은 피해자는 물론 子女에게까지 被害를 입힌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家庭暴力에 시달리다 男便을 흥기로 질러 숨지게 한 事件도 종종 일어나고 있으니 家庭暴力은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政治人의 혼란스런 큰 소리는 國民을 피해자로 함은 물론 사회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셈입니다. 또한 집안 한 사람의 不和조성은 宗中全體를 피해자로 휘몰아치게 함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몇 번이고 強調하고 싶습니다.

우리 先祖들은 집안이 平和해야만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고 하여 家和萬事成을 後孫들에게 가르쳐왔습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들 德談을 주고받는데 物質萬能주의라는 세태를 반영하듯 "돈 많이 버세요!" 혹은 "부자 되세요!"라는 德談이 流行하고 있지만 옛 어른들은 지혜롭게 家和萬事成 같은 德談을 나누셨습니다. 和合하는 家庭만이 幸福의 꽃을 피우고 所願을 成就한다하여 집집마다 家和萬事成을 커다랗게 써 붙여놓기도 했지요. 항간에는 집이 부유하여 진수성찬을 먹으면서도 서로 不和하는 家庭을 흔히 보는 반면에 비록 가난하여 맨밥에 물 말아 먹어도 서로 和睦하게 살아가는 家庭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成功한 사람들은 대부분 和睦한 家庭에서 成長했습니다. 和睦한 家庭에서 父母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받으며 자랄 때 成功한다는 증거이지요. 子女들은 父母가 가난하다고해서 失望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책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子女의 失望은 주로 父母의 싸움, 不信, 不和, 강요, 偏愛, 暴力, 意見무시 등 家庭의 不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韓國人들에게 있어서 가족은 모든 삶의 精神的支柱이며 디딤돌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和睦한 家庭이야말로 成功的인 삶의 터전인 것이지요.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는 東洋의 많은 사람이 家訓으로 삼거나 浩然志氣를 키우기 위해 座右銘으로 삼아왔던 名言입니다. 和睦한 家庭을 이루지 못하면서 어찌 世上을 다스릴 수 있는가는 뜻이지요. 그래서 人類를 구하느라 家庭을 못 지키는 英雄보다 家庭에 더 충실한 사람이 되겠다는 영화 주인공의 告白에 우리는 共感할 수 있나 봅니다. 왜 家庭이 소중하나를 묻는다면 바보 같은 짓이겠지요.

그러나 요즘 우리 周邊에는 참으로 家庭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普遍的인 우리 家庭에는 즐거운 對話가 있고 自發的인 服從이 있고 서로 親密한 協同이 있으며 한 식구로써 犧牲과 奉仕가 있고 서로 돕고 아끼는 同情과 獻身의인 사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 家庭은 弱者도 어깨를 펴는 自由의 터전이고 容恕가 있는 平和의 安息處이며 사랑의 共同體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우리 모두 잃어버린 幸福을 回復하고 家和萬事成 과 笑門萬福來하여 幸福한 삶을 누릴 것이며 바라옵건대 우리 順天金氏 家門도 各自 反求 諸己의 反省으로 宗中和合 萬事成의 大望의 꿈이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充心으로 祈願하는 바입니다.

中央宗親會 常任 副會長 金 相 容

# 謹賀新年

順天金氏 中央宗親會

2007年 丁亥年 새해를 맞이하여 順天金氏 家庭에 幸運과 健康이 充滿하시기를 祈願합니다.



회 장 金種植

간 사 장 金鳳煥

총무간사 金東元

종무간사 金光弘

청년간사 金承淵

조직간사 金永日

감 사 金景南

金正泰

- 상임부회장 金相容  
 부회장 金行燁 金商洪  
 金富源 金學元  
 金志燮 金輔淵  
 金夏淵 金柄鮮  
 金三根 金料元  
 金祐永 金文載  
 金東均 金東吾  
 金哲宇 金喆熙  
 金貞順 金喆俊  
 金秀淵 金仁燮  
 金鎮錫 金道淵  
 金商應 金正雄  
 金相默 金德壽  
 金東哲 金지환

- 상임고문 金榮熙 金明在  
 고문 金炳諡 金明奎  
 金達賢 金東柱  
 金裁俊 金復在  
 金甫淵 金商泊  
 金采源 金東澤  
 金贊洙 金大淵  
 金沅杰 金東泳  
 金椿集 金柄錫  
 金桂在 金升淵  
 金東杰 金병환  
 金仁培 金봉태  
 金昌淵 金두언



# 노령화에 따른 합동 시제(時祭)를 모시고



우리는 단군성조의 민족사상과 홍익인간의 도덕정신에 생존의 뿌리를 내리고 유교(儒敎)이념으로 이를 뒷받침하여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지켜 왔을 뿐 아니라 조상을 숭배하고 겨례를 사랑하며 이웃을 돕는 미풍양속을 생활화 하여 5천년 역사를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급변 하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 "정보화사회"로 숨 가쁘게 물 밀어듯 밀려가면서 우리 조상의 뿌리를 간직한 농촌은 공동(空洞)화 현상을 이루어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도시로 떠나고 산하(山下)촌에는 조상을 지키는 노인들만 동그랗게 남아 농촌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78세(1930년 경오생)에 이르러 이제야 겨우 내가 걸어온 발자취를 뒤 돌아 보게 됐으니 50세에 정년퇴직하고 고향을 찾아온 것이 었그제 인듯한데 벌써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딸들이 있지만 박사나 석사나 하면서 직장 따라 각처로 흐트러져 저이들 살기에 급급하여 조상이나 농촌을 찾는 일은 거의 없으니 어찌 늙은이들의 고통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 자신에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누구냐? 하고 자문(自問)해 봅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토록 한 것은 예수도 석가모니도 안인 오직 먼 조상(祖上)으로부터 피의 끈을 이어 받아 만물지중(萬物之中) 유인최귀(唯人最貴)의 인간으로 태어나 위로는 조상에서 아래로는 자손만대에 이어줄 피에 끈의 중심축(中心軸)에 서서 이음쇠 역할을 부여 받고 이 땅에 태어 났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당당한 조상이 되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을 하면서 마음 다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면 누구나 똑같은으로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당신의 의무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먼 훗날 후대 자손들의 중시조(中始祖)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피의 끈을 잇기 위하여 종족 보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노인들은 이 세상이 살아져 버리기라도 하는 듯 긴 한숨을 내쉬며 우리가 죽으면 조상도 고향도 다 사라질 것이라고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해남 순천 김씨는 시조 총(攄)자 할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26세조 효(孝)자 우(友)자 낙향조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많은 자손들이 청계면 방충리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고 있으며 여기에서 갈여나온 黃山派 문중은 32세 관(轄)자 할아버지 이고 나는 42세손 상(相)자 행렬(行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제(時祭)가 시작되면 무려 10여일을 연이어 성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제법 예의를 갖추어 제관과 집사를 분장하고 10여 노인들이 활기를 부르며 의젓하고 자랑스럽게 제향을 모시다가 끝 무렵이 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들 불참하고 겨우 2,3명이 모여 형식적으로 성묘를 마치고 나면 그 허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서는 안되겠다"고 몇날며칠을 앞가월부의 문중회의를 거쳐 합동 시제로 모시기로 확정하고 기존에 있던 은덕제(隱德齋)를 보수(補修)하

여 많은 제관(祭官)들이 불편 없이 시제(時祭)에 참배 할 수 있도록 만반에 준비를 갖춘후 매년 음력 10월(양력11월) 첫 공휴일에 시제를 모시기로 정하고 객지에 있는 자손들에게 취지 설명과 함께 참배를 권유 하였더니 이외에도 많은 객지 자손들이 모여들어 오랜만에 제사다운 제사를 모시게 됐습니다.

◎요령으로는 103위분의 할머니 할아버지의 위패를 모시고 32세 관(轄)자 할아버지부터 37세조 할아버지까지는 일괄하여 제사를 모시고 38세조는 5형제분이라 각과별로 객지 젊은이들로 하여금 제관과 집사를 정하여 이하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초헌(招魂)하여 모시니 처음 참관하는 젊은이들은 지금까지 몰랐든 할머니 할아버지를 알게 됐다며 기뻐하면서 더욱 모처럼 고향을 찾아 부모형제를 만나보니 일석이조의 기쁨을 만끽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같은 일가 이면서도 모르고 지내다가 서로 인사를 하고 금방 형님 동생 하면서 사는 곳이 어데야? 우리 서로 가까우니 연락하고 서로 도와 가면 살자고 다짐하니 조상 덕에 만남의 장도 이루어 그 기쁨 또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 침체됐던 문중" 또한 이로 인하여 다시 활기를 찾고 이제부터 더욱 부흥 시켜 나갈 것을 단단히 약속 하였습니다. 역시 이들 객지 젊은이 들은 점심식사 후 그날로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 무엇이라도 내가문중을 위하여 도울 것이 없겠느냐? 하면서 날근 제기며 기타 제구 등과 제사비용에 보태 쓰라고 하면서 회사금(봉신포)까지 보네오니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이제 노인들의 한숨 소리도 자취를 감추고 오히려 내년에 있을 시제 날이 지금부터 기다려진답니다. 물론 이 일이 조상님에게는 미안하고 또한 전통양속(傳統良俗)에 위배 되는 줄 어찌 모르겠습니까만 우리도 이젠 시류(時流)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도 또 내년에도 이렇게 모신다면 더더욱 많은 젊은 후손들이 모여 배우고 익혀 우리보다도 더 좋은 "아이디어"를 짜 네여 아무런 걱정 없이 자손만대 까지 편편이 이어 나갈 것으로 믿으며, 이제부터는 우리 노인들도 모든 실을 잇고 편히 잡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쓰다보니 너무 장황한 너스레가 된듯하여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 황산파 자손들은 이 글을 꼭 한번 읽어 보시고 내년에는 모두 서로서로 권유하여 다함께 많은 형제들이 모여 시제(時祭)와 함께 축제 잔치로 승화 시켜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만 붓을 놓습니다. 모두 모두 하시는 일이 조상 임들의 보살핌으로 일가월진(日加月進)하시기 간절히 기원 합니다. 지루한 시간 읽어주셔서 감사 합니다. 끝

2007년(丁亥年) 2월 9일

순천김씨(황산파문중) 42세손 김 상 목 근정

## 謹賀新年

節齋公派宗親會

襄景公派宗會

尙衣院公派宗會

持平公派宗會



會 長 金貞錫(字貞順)  
副會長 金亨柱  
總 務 金酉錫  
監 查 金光元  
監 查 金完錫

會 長 金喆熙  
副會長 金道淵  
總 務 金炳茂

會 長 金鍾洛  
副會長 金東漢  
總 務 金商珉

會 長 金學元  
副會長 金鍾元 外7인  
總 務 金東元



# 活氣찬 宗親會를 만들자

(= 새 會員 발굴과 奉仕活動을 통해 =)



丁亥年 新年을 맞아 살찐 돼지처럼 부자가 되라고 福을 빌어주는 人事를 많이 주고받았다. 新年이란 新字는 묵은 나무를 도끼로 찍어 버리고 새싹이 돋게 하는 뜻으로 의식의 전환을 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福이란 인사 말속에 혼이는 빌고 기도하면 神이나 祖上神이 福을 내려 주시는 것으로 우연에 거는 기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많다.

福자를 풀이하면 논밭(田)에서 일해서 먹고(口) 한결같은 (一) 마음으로 사는 모습(示)이 복이라고 한 것이다. 꾸준히 노력하는 삶을 강조한 것이다. 原語인 희랍어에서도 행복을 「마카리오스」라고 하는데 섬사람들이 신이주신 땅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협동해서 개간하여 오곡백과가 없는 것이 없게 수확하여 공평히 나누어 살면서 육지를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행복이라고 했다. 「마카리오스」는 섬의 이름이지만 행복의 대명사가 된 것이다. 그래서 행복이란 자력으로 얻어진 내심으로부터 우리나라는 기쁨이란 것이다. 그래서 종친회원 각자도 의식의 전환으로 새롭게 福된자가 되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속한 宗親會가 새로 거듭나서 활기 있는 宗親會로 變貌해서 자주 찾아가고 싶어지고 서로 만나면 헤어지기가 싫어지는 기쁨이 가득한 宗親會가 됐으면 한다.

종친회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우리 宗親會는 매우 훌륭한 역사와 福받은 유명한 인물들이 있었다. 중북됨이 있겠지만 젊으신 宗親들을 위해 간략하게 참고해 보면 金氏의 始祖인 김알지(金閔智)는 탈해왕9년 금성 서쪽 숲속에서 금함(金函)에서 나왔으므로 金氏라고 하였고 가야국 始祖인 수로(首露)도 42년(신라유리왕 19년) 금관국(金官國) 북쪽 구지봉(龜旨峰)에 떨어진 6개 황금알에서 나왔다고 해서 金氏라고 한다. 順天金氏 始祖는 김알지로 전해오고 있다. 순천김씨 시조 김충(金攄)은 신라의 왕손으로 현안왕 때 인가별감(仁嘉別監)을 지냈고 평양군(平陽君) (平壤은 順天의 옛 이름)에 봉해 지냈다.

가문의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명신(名臣) 김종서(金宗瑞)이며 (1388-1453 우왕9년-단종1년) 그는 지용(智勇)을 겸비한 분으로 좌의정으로 세종을 보필하며 대호라는 별명까지 붙었었다. 1453년 왕위를 노리던 수양대군(首陽大君)에 의해 두 아들과 함께 희생되었다. 그 밖에도 고위직을 지낸 김경진 (1589년-1637년 인조15년) 김광엽(1561년-1610년 광해군2년) 김진표(1614년-1671년 광해6년) 김협, 조선의 학자로서 의학에 정통하여 선조의 시의(侍醫)였다. 김흥국 (1557년-1623년 명조12년)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가기도 했다. 그 외 조선시대 고관으로 각지에서 헌신하며 자손을 퍼트린 것이 전국에 종친이 퍼져 있다고 하겠다. 또한 8·15해방과 건국 이래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신 종친들이 적지 않다. 정계에서 김종철 국민당 총재 등 국회의원이

으로 여러분이 계셨고 사법부에도 김승우 부장판사를 비롯해서 여러분의 판사와 변호사들이 계셨다. 경제계에도 대표적으로 한화그룹 회장 김종희(사망)와 현재 김승연 회장이 있다. 교육계에도 김동석 공학박사 외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봉직하고 있는 것으로 뿌리 찾기 운동본부가 1997년 3월까지 조사 기록한 내용을 줄여서 적었다.

그 이후에는 성장 발전한 종친들이 각계에서 활약하시고 있는 것을 조사한다면 자랑스러운 만큼 많은 수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한 예로써 평안북도 정주군 안흥면 호현동 고령촌에서 순천김씨 군수공과 집성촌(30호)에서 8·15이후 월남한 18명의 형제들 중에 홍배(弘培)종친은 금년1월에 86세로 작고했으나 전남 광주 소재 일산 방직 전무이사로 광주 공장장(3천명 종업원)을 수년간 지냈고 광주 기독교병원 이사장을 역임했다. 그 지손 진추는 광주실업회장, 진승은 사장이었다. 동생인 저는 CBS광주, 대구국장 부산 YMCA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저의 지식 진호는 서울 노원구 제민 정형외과 원장이고 진우는 (주)한국 야쿠르트 진천공장 품질관리 과장이자. 그 밖에 형제들의 이세증에 진철이는 이학 박사로서 국립 부산대학교 자연과학 대학 학장이다. 의준이는 이학 박사로서 연구소에 있고 동근이는 경제학 박사로서 아주대학 교수이다. 형태는 건축회사 사장이고 용태는 이학박사로 한국 표준과학 연구원에 있다. 진용이는 대전 현충원 입업주사로 있고 진한이는 광주 성요한 병원 관리과장이다. 그밖에 교직과 여타 종친들은 지면상 다 열거 할 수가 없다. 이처럼 성장한 젊은 종친들을 발굴해서 회원으로 흡수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두터운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케 한다면 우리 종친회는 활성화 돼서 그야말로 돼지해에 걸맞는 즐거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민족의 번영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金鳳培 前 CBS光州, 大邱 局長



## 謹賀新年

忠貞公派宗會

御史公派宗會

進士公派宗會

副護軍公派宗會



會 長 金載俊  
副會長 金春熙 外3人  
總 務 金重溶



會 長 金正泰  
副會長 金賢熙  
總 務 金在熙



會 長 金百源  
副會長 金奉斌  
總 務 金柄允



會 長 金商錫  
副會長 金大淵  
總 務 金世淵



# 소심란과 청복(淸福)



난(蘭)은 강한 햇볕에 노출되기를 싫어한다. 한적한 산야, 약간 그늘진 곳에서 영화도 없지만 오욕도 없는 조용한 삶을 희구한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러나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자연이 준 분수대로 살다가 자연이 준 수명대로 죽어가기를 바랄 뿐이다.

그런데 난은 자연의 상태에서 채취당해 쪼은 화분 안에 가두어진 삶을 살고 있다. 그러기에 난은 자연의 삶을 매우 그리워하고 자유의 날을 소망하면서 자기 수련에 경건히 정진하는 모습이다.

정(淨)한 물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정한 모래가 아니면 뿌리를 내리지 않음은 제 살던 풍토가 그리워서요, 기온이 맞는지 않으면 성장을 멈추고, 습도가 맞지 않으면 꽃을 피우지 않음은 제 습성대로 살고자 하는 말없는 저항인 것이다. 이는 난 본래의 성품이기도 하지만 자연의 상태에서야 이다지 까다롭게 굴 까닭이 없는 것이다.

난은 더위에 시달리거나 추위에 얼어도 시들어지지 않는다. 죽어도 평소의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말라죽는다. 비록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바르게 살다 깨닫기 죽을지언정 비굴한 삶은 원치 않기 때문이다.

뿌리 부분의 두터운 세포층에 항상 적당량의 수분을 저장하고 있다가 수분공급이 부족할 때 자기 자신의 것만으로 유유자적한다. 그러나 수분이나 양분의 공급이 적당량을 넘으면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킨다. 필요량 이외의 정도에 넘친 물질은 바라지 않는 탓이다. 쾌적한 환경, 자유로운 생활만 보장된다면 난은 필시 쪼은 화분 안에서조차 자족할 터이다.

난은 집착이나 욕심이 적기 때문에 언제나 푸르고 싱그럽게 살 수 있다. 그 푸르고 싱싱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건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한다.

난은 욕심은 적으나 생명의 의미는 꾸준히 추구한다. 무더운 여름내 아무런 변화도 없는 듯하지만 실은 남몰래 꽃망울을 잉태하고 있다. 그러면서 가운래 겨우내 조심조심 몸 안의 생명을 기른다.

아직 차가운 이른 봄, 터질 듯 부풀어 오른 꽃망울은 방그레 얼굴을 붉히면서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한다. 조선의 여인들이 쓰던 푸른빛 장옷인 양푸른 꽃부리를 살며시 들추면서 다소곳이 매어미는 해하얀 얼굴의 춘란소심(春蘭素心)-순백의 나비런 듯 살포시 시려왔던 이러한 모습은 잠시 환희한 경이에 젖게 한다. 소망이 넘쳐나는 밝은 표정과 기쁨을 머금은 청순한 눈매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세사(世事)에 영합하지 않고 제 뜻대로 순수하게 살다 순(殉)한 생명의 부활이다.

좋은 마음으로 남을 대할 때 기꺼움이 그 눈초리에 나타나게 된다는 청안(靑眼)

과도 같은 꽃, 온갖 잡스러움을 멀리하고 세심(洗心)으로만 소심(素心)으로만 가꾸어 피운 신앙과도 같은 꽃, 세상의 모든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여 자연히 밖으로 나타나는 법열의 미소와도 같은 꽃... 이 소심란을 마주하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청복(淸福)이란 것이 무엇인지 조금쯤 알 듯한 충동을 받기도 한다. 참으로 사랑스럽고 소망스러운 꽃이다.

난(蘭)-가만히 보아보면 입안에서 개운한 맛을 자아낸다. 그 맛을 진득이 음미하면 향수어린 고향의 향긋한 맛이 뇌리에 퍼진다. 어린 시절 고향의 뒷산에서 개구쟁이 친구들과 개암을 따먹던 애뜻한 추억의 그 맛...

난은 이름조차 이름답다. 글자조차 예쁘다. 좋은 친구를 난객(蘭客)이라 하고 뜻맞은 친구와의 사귀를 금란지교(金蘭之交) 곧 금란(金蘭) 또는 난교(蘭交)라 한다. 훌륭한 남의 자식이나 아녀자의 고결한 정절은 난옥(蘭玉), 지조가 굳은 사람을 난석(蘭石), 아름다운 샘을 난천(蘭泉), 아름다운 집을 난당(蘭堂), 문장의 아름다움을 난조(蘭藻)라 하는 등 모두가 한결같이 아름다운 말들이다.

오동나무는 천년을 늙어도 항상 곡조를 품고 있고, 매화나무는 일생동안 추위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桐千年老恒藏曲, 梅一生寒不賣香)는 옛시가 있는데 그 향장곡(恒藏曲)과 불매향(不賣香)을 함께 갖춘 것이 난초가 아닌가 싶다.

항상 푸르고 싱싱하여 그 청초함을 잃지 않음을 늘 노래와 소망을 품고 있음이요, 차라리 시들어 죽을지언정 정한 물이나 정한 모래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음은 그 향기, 그 지조를 팔지 않음이다.

꽃의 향기는 맑되 진하지 않아 청향(淸香)이라 하고, 은은하고 그윽하여 유향(幽香)이라 한다.

원한히 휘어진 곡선의 멋스러움, 정갈하고 맑은 자태, 순박하면서도 결곡한 때깔 등 예나 이제나 민인의 사랑을 받아온 이유는 그 고결한 천품을 변치 않은 탓이리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싱싱한 생명력이 전해져 오는 청초 무비함이야말로 난의 성품 중에서도 가장 빼어난 진수이다.

〈중용〉 첫머리에 “하늘이 주신 것이 성품이요, 성품을 따르는 것이 도(道)요, 도를 닦는 것이 가르침이다.(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라는 말이 있다. 하늘에서 받은 성품을 그대로 잘 따르는 것이 도(道)인데, 그 도를 잘 닦는 것이 자기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교육이라는 뜻이다. 난이야말로 솔성(率性)의 경지에 들어선 군자(君子)임이 분명하다.

오늘도 난초 앞에서 웃짓을 여미고 청심(淸心)과 청향(淸香)과 청복(淸福)을 배운다.

김종현(수필가, 남은공 16세손, 시조42세)

## 謹賀新年

### 典書公派宗會

會長 金炳潤  
副會長 金炳學  
總務 金碩載

### 判書公派宗會

會長 金仁遂  
副會長 金志燮  
總務 金周南

### 注書派宗會

顧問 金亨寬  
會長 金貞錫  
(字貞順)  
副會長 金龍錫  
總務 金酉錫  
監查 金錫元  
監查 金光元

### 監察公派宗會

會長 金春熙  
副會長 金俊一  
總務 金東勳

### 郡守公派宗會

會長 金永蘭  
總務 金在榮

### 橫城公派宗會

會長 金鳳遠  
副會長 金重溶  
外1人  
總務 金木熙

### 牧使公派宗會

會長 金都淵  
副會長 金二淵  
總務 金秀楨

### 柯谷公派宗會

會長 金東善  
副會長 金相德  
總務 金東一

### 水北公派宗會

會長 金希貞

### 萬戶公派宗會

會長 金允在  
副會長 金商鎮  
總務 金商珉



시조

# 芳春里 가는 길

고향길 천리길 그리움에 젖는 길  
눈앞에 삼삼이는 꿈길에서 가는 길  
고향에 가는 발길이 왜 이다지 더딘가

해남땅 계곡 들녘 반계 대운 사잇길로  
흑석산 발우산 밑 방춘리 가는 길이  
이리도 멀고 그리워 눈시울에 젖는다

정든 길 그리운 길 세월처럼 아려한 길  
애증(愛憎) 속에 웃고 울며 가난해도 즐거웠던  
이 생명 태어나 자란 품속 같은 은혜길

노자 없이 못 가는가 금의(錦衣) 없어 못 가는가  
부모님 유택(幽宅) 앞에 면목 없어 못 가는가  
고향길 부끄러운 길 불효자가 우는 길

석삼년 못 뵈온 길 마음 잡초 우거지고  
부모님 산소 길도 적막 산길 됐으려니  
지은 죄 너무 우거져 어찌 해쳐 갈꺼나

방춘 옛길 고살길들 추억 절절 스민 길들  
석삼밭 건넛독논 오가며 누비던 길  
청중밭 밤나무들은 열매 맺어 주려나

고향길 멀다 해도 본향(本鄉)길 더 멀다네  
육신 난 곳 고향이요 영혼 난 곳 본향이라  
인생길 고향을 넘어 영생천국 가는 길

부모님 누린 향년 내 나이 넘어서고  
의람이 백발 되어 덤으로 사는 세월  
보은(報恩)의 인연을 따라 더딘 대로 가리라

김종현(시인, 수필가, 남은공 16대손, 시조42세)



# 謹賀新年

## 釜山宗親會



會 長 金仁燮  
副會長 金成福  
外2人  
總 務 金柄模

## 保寧宗親會



會 長 金仁遂  
副會長 金志燮  
總 務 金周南

## 利川宗親會



會 長 金柄濶  
副會長 金炳學  
總 務 金碩載

## 高陽宗親會



會 長 金東學  
副會長 金東旭  
總 務 金東元

## 安東宗親會



會 長 金哲宇  
副會長 金秉德  
總 務 金鍾德

## 聞慶宗親會



會 長 金東哲  
副會長 金萬熙  
副會長 金承淵  
監 查 金동윤  
監 查 金병춘  
總 務 金吉永  
財 務 金昌煥

## 黃山宗親會



會 長 金相允  
總 務 金南述

## 原州宗親會



會 長 金道均  
副會長 金昌模  
總 務 金澤桓

## 虎山宗親會



會 長 金동재  
副會長 金연옥  
監 查 金진섭  
監 查 金正수  
總 務 金동진  
財 務 金동배  
理 事 金대섭  
김동규  
김동우  
김원섭  
김상호



# 회비 입금 현황(인명부록)

2006년 11월 1일 ~ 2007년 1월 30일

### 고 문

- 1. 김보연 2006. 12. 11 부산광역시 남구

### 부 회 장

- 1. 김지섭 2006. 11. 20 충청남도 보령시
- 2. 김하연 2006. 12. 22 경상북도 안동시
- 3. 김보연 2006. 12. 27 경기도 고양시

### 운영위원

- 1. 김형근 2007. 1. 2 경기도 고양시

### 이 사

- 1. 김연복 2006. 11. 22 서울특별시 광진구
- 2. 김봉빈 2006. 11. 20 전라남도 해남군
- 3. 김길홍 2006. 11. 28 충청남도 천안시
- 4. 김길용 2006. 12. 14 광주광역시 남구
- 5. 김동현 2006. 12. 28 경기도 성남시

### 대 의 원

- 1. 김장환 2006. 12. 13 충청남도 보령시
- 2. 김진석 2006. 12. 12 전라남도 해남군
- 3. 김동구 2006. 12. 18 경기도 고양시
- 4. 김성환 2006. 2. 28 경상북도 영천시

### 감 사

- 1. 김경남 2006. 11. 20 경기도 안산시

### 외 원

- 1. 김주상 2006. 11. 7 전라남도 해남군
- 2. 김동한 2006. 11. 30 서울특별시 동작구
- 3. 김영낙(락) 2006. 12. 7 울산광역시 남구
- 4. 김동기 2006. 12. 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5. 김순영 2006. 12. 11 충청남도 금산군
- 6. 김동원 2006. 12. 11 경상북도 경주시
- 7. 김영식 2006. 12. 11 경기도 용인시
- 8. 김태연 2006. 12. 11 경기도 용인시
- 9. 김동선 2006. 12. 12 경기도 이천시
- 10. 김동섭 2006. 12. 8 경상북도 봉화군
- 11. 김상용 2006. 12. 11 전라북도 익산시
- 12. 김기석 2006. 12. 11 전라북도 담양시
- 13. 김종삼 2006. 12. 11 경상북도 안동시
- 14. 김영철 2006. 12. 12 충청북도 괴산군
- 15. 김정연 2006. 12. 19 대전광역시 서구
- 16. 김두연 2006. 12. 20 경상북도 경산시
- 17. 김병수 2006. 12. 20 전라북도 구례읍
- 18. 김장호 2006. 12. 22 강원도 춘천시
- 19. 김교열 2006. 12. 26 서울특별시 중랑구
- 20. 김상복 2006. 12. 26 전라북도 순천시
- 21. 김종열 2006. 12. 26 울산광역시 남구
- 22. 김일국 2006. 12. 26 전라남도 구례군
- 23. 김종철 2006. 12. 27 전라남도 여수시
- 24. 김완석 2006. 12. 28 광주광역시 광산구
- 25. 김봉태 2006. 12. 27 전라남도 해남읍
- 26. 김홍연 2006. 12. 29 울산광역시 남구
- 27. 김동욱 2006. 12. 29 경상북도 문경시
- 28. 김두연 2007. 1. 4 경상북도 상주시
- 29. 김동익 2007. 1. 8 충청북도 충주시
- 30. 김기원 2007. 1. 16 대구광역시 달성구

### 무 명 인

- 1. 2006년 12월 22일 우리은행/소공동지점
- 2. 2006년 12월 28일 하나은행/은행동지점
- 3. 2006년 12월 29일 농업협동/진접풍양지점
- 4. 2007년 1월 2일 농업협동/해남동부지점

# 謹 賀 新 年

### 大田,忠南宗親會

- 會 長 金炳鮮
- 副會長 金正雄
- 總 務 金東元

### 天安,牙山宗親會

- 會 長 金泰淵
- 副會長 金商根
- 總 務 金東賢

### 仁川宗親會

- 會 長 金碩淵
- 副會長 金世淵
- 總 務 金周熙

### 順天宗親會

- 會 長 金學淳
- 副會長 金鍾烈
- 外1人
- 總 務 金鍾斗

### 盤谷宗親會

- 會 長 金圭八
- 副會長 金秉準
- 總 務 金仁浩

### 龜尾宗親會

- 會 長 金澤洙
- 副會長 金東煥
- 總 務 金希燮

### 海南宗親會

- 會 長 金鎮錫
- 副會長 金相允
- 外1人
- 總 務 金勝夫

### 潭陽宗親會

- 會 長 金貞順
- 副會長 金亨柱
- 總 務 金西錫

### 龍仁宗親會

- 會 長 金漢鶴
- 副會長 金漢泰
- 總 務 金昌烈





# Your Dreamworld...

한화가 새로운 모습으로 당신과 만나겠습니다  
당신이 꿈에 그린 세상, 한화가 준비하겠습니다

Hanwha TRcircle은 Trust(신뢰), Respect(존경), Innovation(혁신)의 창조적 만남을 통해 끊임없는 변화와 글로벌 성장을 추구하는 한화의 의지 표현입니다.

Your Dreamworld  
 Hanwha